국내 주식 투자전략

이준희 02) 768- 7988, ejuny@nhwm.com

실적과 외국인 수급을 겸비한 대형주에 주목

KOSPI, 5개월여 만에 2,000pt 돌파

다우/S&P 사상최고치 경신, 나스닥 5,000선 돌파

KOSPI가 미국시장의 호조세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여 만에 2,000선을 넘어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말에 나온 중국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다우와 S&P500 모두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였으며, 나스닥지수는 15년 만에 5,000선을 넘어서는 등 글로벌 증시의 상승흐름도 재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나스닥의 경우 닷컴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3월 10일 5,000선 돌파 이후 버블이 붕괴되면서 2002년 10월 1,100선까지 하락한 경험이 있으나, 최근 애플을 비롯한 IT기업들의 탄탄한 수익력을 기반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기술주의 비중도 40% 미만이어서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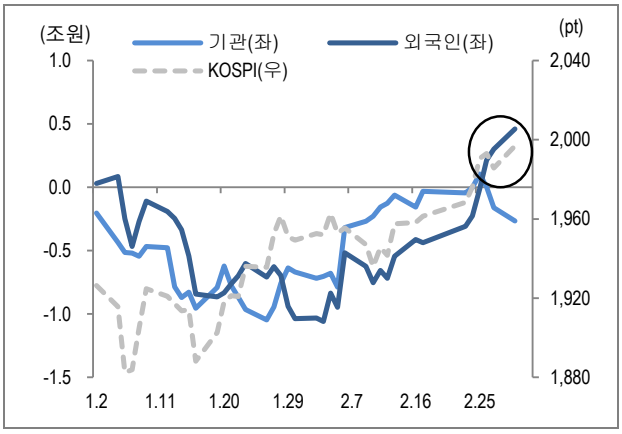
국내 주식시장의 양호한 여건

이러한 맥락 속에 국내 주식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렉시트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수면아래로 내려가고, 미국의 출구전략이 상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대외변수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ECB의 QE 본격화와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리인하로 글로벌 유동성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위험자산 선호현상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구조도 안정감을 더해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외국인 순매수, 시가총액 대형주로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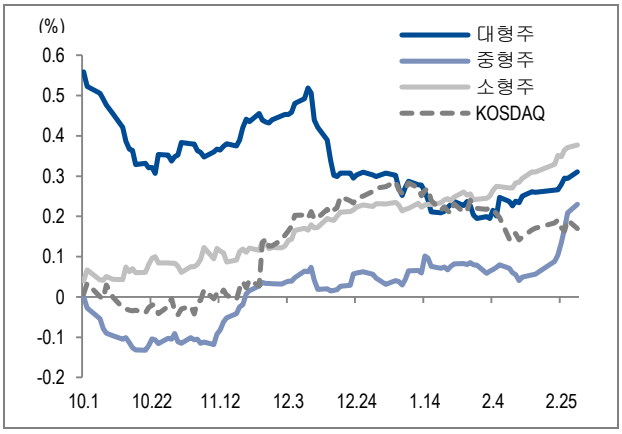
실제 연초 이후 1월말까지 누적으로 1조원 넘게 순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2월 이후 매수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지난주 후반에는 연초 이후 누적으로도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다만, 시가총액 규모별로는 차별적인 매수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 시가총액 대형주와 중형주로의 매수강도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국내 주식시장 외국인 매수강도 강화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시가총액 규모별 외국인 누적순매수 강도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대형주의 매력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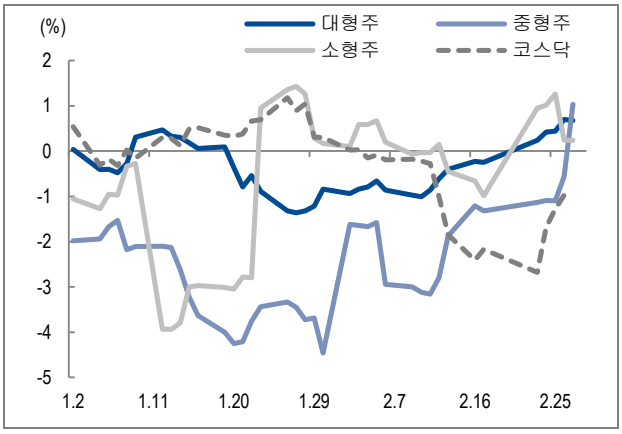
대형주와 중형주의 이익모멘텀 개선

KOSPI 시가총액 규모별 2015년 EPS 전망치(1개월) 변화율을 살펴보더라도 2월 이후 대형주와 중형주의 이익모멘텀이 빠르게 개선되며 (+)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KOSDAQ이 1월 중순 이후 이익모멘텀이 둔화되면서 2월 들어 (-)권으로 돌아선 것과 달리 이익모멘텀 측면에서 대형주와 중형주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주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메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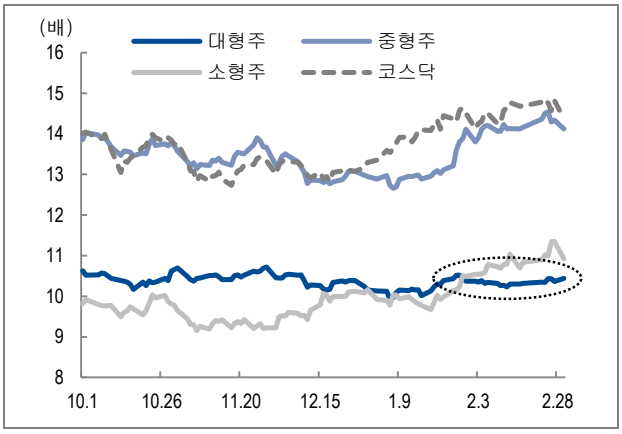
여기에 밸류에이션 수준 측면에서도 대형주의 상대적인 우위가 돋보인다. KOSDAQ을 비롯한 KOSPI 중형주와 소형주가 연초 이후의 상승세로 밸류에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단기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KOSPI 추가 상승 시 대형주로의 수급 강화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시가총액 규모별 2015 년 EPS 전망치 변화율(1 개월)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시가총액 규모별 12 개월 Fwd PER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실적과 외국인 수급을 겸비한 업종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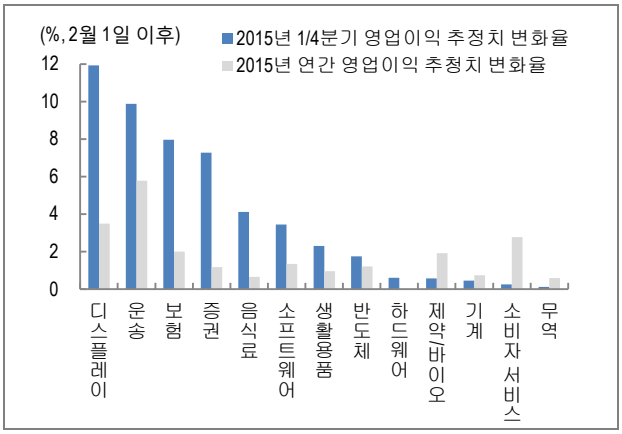
이익모멘텀이 안정적인 업종

한편, 지난 2월 이후 영업이익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는 업종을 점검해보면 디스플레이, 운송, 보험, 증권, 음식료, 소프트웨어, 생활용품, 반도체, 하드웨어, 제약/바이오, 기계, 소비자 서비스, 무역 등 13개 업종이 2015년 1/4분기 및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동시에 개선되며 향후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부터 1/4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가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익전망치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상향되는 이들 업종군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적과 수급을 겸비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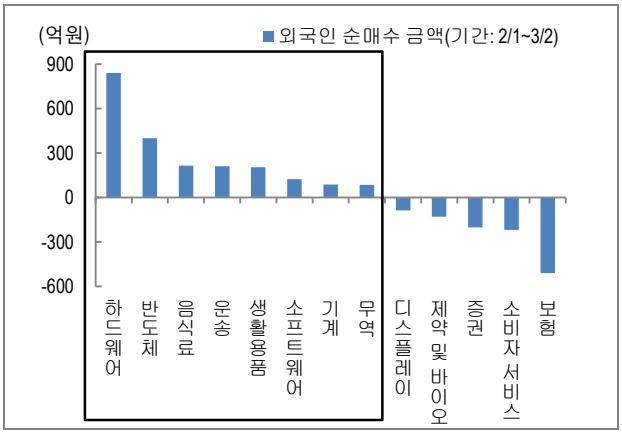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는 13개 업종의 외국인 수급을 점검해본 결과 2월 이후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하드웨어, 반도체, 음식료, 운송, 생활용품, 소프트웨어, 기계, 무역** 등 8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영업이익 추청치 개선에 따른 실적모멘텀과 더불어 수급메리트도 동시에 겸비하고 있어 2,000선 돌파 이후 KOSPI 추가 상승 시 업종 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매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시 실적개선 업종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실적개선 업종의 외국인 순매수 금액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